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13호 【루게 제25091호】 주제 104 (2015)년 11월 9일 (월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고 리을설동지의 령구를 찾으시여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며 조선인민군 원수인 리을설동지의 서거에 즈음하여 8일 고인의 령구를 찾으시여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농적위군 군인들이 세워져있었다.

유가족들이 호상을 서고있었다.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들이 고인의 령구 옆에 서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보내신 화환이 고인의 령구앞에 놓여있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무력기관 등의 화환들이 놓여있었다.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농적위군 군인들이 세워져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각별한 사랑과 보살핌속에서 백두의 혁명정신을 체질화한 혁명투사로, 유능한 군사일군으로 자라나 수령물위의 제1선에서 당과 수령을 결사보위한 호위전사, 인민군대를 선군혁명의 주력군으로 강화발전시키는데 특출한 공적을 쌓아올린 항일의 로루사를 추모하여 묵상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백옥같은 충정과 의리를 지니고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인민군군인들을 진위전사들의 충실성의 전통을 계승한 진짜배기혁명가

로 키우기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친 우리 당의 충직한 로혁명가를 잃은 비통한 심정을 안으시고 령구를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수령님의 가장 충직한 혁명전사였으며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전우였던 리을설원수동지를 잃은것은 우리 당과 군대, 인민에게 있어서 커다란 손실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리을설원수동지는 혁명의 가장 준엄한 시기에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으로 결사보위하였으며 주체혁명무력의 발전행로에 뚜렷한 생의 자욱을 남겼다고,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군인들, 인민들이 당과 조국, 혁명에 무한히 충실했던 로혁명가의 빛나는 삶을 영원히 잊지 말고 그가 지녔던 충실성과 혁명적진념을 따라 배워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고인의 유가족들을 만나시여 심심한 조의를 표시하시고 따뜻한 위로해주시였다.

본사정치보도반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

제00105호 주제 104(2015)년 11월 8일 평양

조선인민군 원수 리을설동지의 서거에 즈음하여 전군에 조기를 띄울데 대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장 충실하였던 리을설동지는 항일대전의 간고한 나날부터 혁명의 사명부를 목숨으로 보위하여온 우리 혁명의 제1세 호위전사, 항일의 로루사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전우인 리을설동지는 우리 혁명이 력사에 류례없는 간고한 시련을 겪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제1선에서 호위하여온 제일충신이며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일편단심 우리 당을 총대로 충직하게 받들어온 참다운 혁명전사이다.

나는 전군의 모든 장병들이 조선인민군 원수 리을설동지의 서거에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추모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명령한다.

- 모든 부대, 구분대들은 2015년 11월 8일 18시부터 11일 18시까지 조기를 띄울것.
- 모든 부대, 구분대들은 조기를 띄우는 기간 일체 가무와 유희, 오락을 하지 말것.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고 리을설동지의 령전에 화환을 보내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며 조선인민군 원수인 리을설동지의 서거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여 8일 고인의 령전에 화환을 보내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를 여러 나라에서 보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소집할데 대하여》를 여러 나라에서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의 기간에 보도하였다. 쿠바의 프엔싸 라떠나통신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2016년 5월초에 소집한다는 결정서를 채택하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결정서는 지금 전당, 전군, 전민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조선로동당 창건 일흔년을 혁명적대경사로 빛내인 기세드높이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총공격전을 힘 있게 벌리고있다고 강조하였다. 결정서는 오늘 조선인민앞에는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일대 양상을 일으키며 조선로동당을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더욱 강화 발전시켜나가기야 할 무겁고도 성스러운 혁명임무가 나서고있다고 지적하였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 위업수행에서 세계적인 번혁이 일어나고있는 조선로동당과 혁명발전의 요구를 반영하여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소집할것을 결정한다고 결정서는 밝혔다. 러시아의 따스통신, 리아 노보스씨통신, 인터넷통신 렌다, 루, 중국의 《한자시보》, 《로녕신문》, 신화망, 길림망, 동북보도망, 이란의 프레스TV방송, 이라크방송, 메흐르통신, 신문 《파이낸셜 트리뷴》, 만민신문 《데모크러시》, 오스트리아의 ORF-TV방송, 영국신문 《가디언》, 프랑스의 AFP통신, 미국의 AP통신, CNN방송, 폭스뉴스, 일본의 지지통신, 《아사히신문》, 《도쿄신문》, 《니혼게이아이신문》, 《아이니찌신문》, NHK방송, 도이칠란트방송연단 인터넷 홈페이지 《현저지도소식》도 결정서를 보도하였다. 【조선중앙통신】